

#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경영에 최선을”

###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 ‘변화와 혁신’ 새로운 경영방침 발표

전북개발공사(이하 공사)는 10일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경영을 위해 지역 언론인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 제9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천환 사장은 전북개발공사의 설립목적에 맞게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전북도의 역점사업인 산악농경, 융복합 미래산업, 여행체험, 새만금 세계캠버리 등을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는 등 전북도의 정책방향과 공조를 맞

추는 새로운 경영방침을 설명했다. 김천환 사장은 “도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으뜸 공기업이 만들어 가기 위해 공격성과 수익성을 담보하는 경영방향을 세웠다”며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도민과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의 중점추진 경영방향으로 ▲대규모 수익사업 발굴을 통한 공사의 안

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경영실현을 위해 4대 전략 방향 설정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등의 공익사업 강화를 통한 공사의 설립 목적 달성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확대 개편 등이다. 한편,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전북개발공사는, 정부3020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새만금 지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도시재생 뉴



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미래사업에 적극 도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도내 3월 취업자 증가

### 호남지방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호남지방통계청은 전국 표본조사구 약 34,800가구 중 전북지역 2,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간의 경제활동상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19년 3월 전라북도 고용률은 58.2%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1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OECD비

표 기준)은 63.6%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3월 전라북도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했고 실업자는 2만1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 감소했다. 2019년 1/4분기 전라북도 실업률은 3.3%로 전년동분기대비 0.1%p 하락했고 청년실업률은 10.2%로 전년동분기 대비 1.3%p 하락 된 것으로 발표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깨끗한 축산농장 · 방취림 조성사업 추진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 임직원과 함께 ‘축산환경개선의 날 캠페인’ 일환으로 10일 남원시 운봉읍 소재 임업농가 농장에서 축산폐기물 방취림 조성, 방취림 조성사업’을 전개했다. 이번 사업은 농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축사 주변에 축박나무, 편백나무, 스트로브자나무 등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자연 친화적 축산업 이미지와 함께, 인근 주민들과 더불어 깨끗한 축산업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강병무 조합장은 “농장주변 나무 울

타리 조성으로 축사 외부경관 개선, 축산폐기물 방취, 다량의 피톤치드 발생에 의한 공기정화, 병충과 곰팡이에 대한 저항효과 등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다”며 “환경과 축산이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 축산업 구현에 농협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협은 지역축협을 중심으로 나무울타리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예쁜농장 벽화그리기 사업 등,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추진하여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농가 스스로 의식변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강원 산불피해 농업인 돕기 성금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9일 강원도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재산을 당한 고성·강릉 등 이재민들의 구호 활동과 농업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1,500만원을 농협 강원 지역본부(본부장 함용문)를 방한해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과 농업인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많은 역경을 이겨 낸 강원도민의 힘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함용문 강원농협 본부장은 “전북농협의 성금은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과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지역을 떠나 농협간의 상생을 몸소 실천해 준 전북농협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전북 사무소 12곳 수상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강희상)은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도 NH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북관내 사무소 12개 농·축협, 개인부문에 11명이 수상을 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종합부문은 정읍농협(조합장 유남규)·오수관촌농협(조합장 정철석)·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진안농협(조합장 허남규)·황토현농협(조합장 김재기)·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 6개 농협이 우수 사무소는 순창농협(조합장 선재식)·익산원에농협(조합장 김봉화)·구전동농협(조합장 양승욱)·남원원에농협(조합장 이정기) 4개 농협이며, 일반보험부문 우수사무소는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황등농협(조합장 최사식) 2개 농협으로 전북에서 12개 농·축협에서 수상을 했다. 특히, 오수관촌농협과 장수농협은 2017년 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개인부문에서는 금상 유영철 과장

(구전동농협)·은상 임미정 과장(진안농협)·동상 최운임 차장(동김제농협)·우수상 신미영 과장(장계농협)·김미경 과장(남원원협)·강은경 과장(진안농협)·신인상 이현숙 계장(화산농협)·유미숙 과장(익산농협)·김혜원 과장(전주농협)이 종합부문에서 수상을 했다. 또한 일반부문에서는 동상 홍경욱 차장(전주농협)·농업인실익부문 이춘래 과장(황등농협)를 포함하여 개인수상자는 11명이 수상했다. 아울러, 구전동농협 유영철과장이 작년 은상에 이어 금상을 수상했으며 동김제농협 최운임 차장이 2013년부터 6년 연속 연도대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워 주목을 받았다. 강희상 총국장은 “전북지역의 여건상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기법으로 농협사업과 농협발전에 크게 기여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2019년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인실익증대를 위해 노력



하고 농·축협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은 비보험을 비롯한 농작물보험, 농기계보험, 가축보험은 물론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등 의무가입상품과 노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간병보험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고객과 안전과 재산보호에 앞장서왔으며, 고객을 이해하고 보답하려는 자세로 사회적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 한식의 세계화, 세계의 한식화

### 하림, 국내 최초 홍콩에 닭고기 신선육 수출 ‘패거’ 식자재 프로모션에서 삼계탕 · 닭볶음탕 등 선보여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 이사 박길연)이 국내 최초로 홍콩 시장에 닭고기 신선육을 수출하는 패거를 이뤄냈다. (주)하림은 최근 부산항을 통해 삼계탕용인 삼계육과 닭볶음탕 전용인 절단육, 후라이드치킨, 양념 무뼈닭발 등 4개 신선육 제품 8(5만7,000불 정도)을 선적해 홍콩으로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홍콩에 수출한 (주)하림의 신선육 닭고기는 10일 현재 홍콩에 도착해 통관 절차를 밟고 있으며, 통관이 통과 되는 데로 교민들과 홍콩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홍콩 수출위해 (주)하림은 지난해 12월부터 KOTRA(한국무역진흥공사)와 함께 닭고기 신선육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홍콩 내 대표기업들과 협의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올해 4월 첫 수출길에 오르게 됐다. 특히 홍콩 최대 요식업체인 Maxim's Group이 개최하는 한국 식자재 프로모션인 ‘광동 한국요리(Canton x K-Food Feast)’에 한국 전통 요리인 삼계탕 등의 닭고기 메뉴를 선보이면서 관심을 받았다. 이에 홍콩의 Maxim's Group을 비롯해 Symphony by Jade, Hoi Yat Heen 등 최상급 요식업체들이 (주)하림의 신선육 닭고기를 활용한 한식 메뉴를 개발하고 현지인들에게 입맛에 맞는 요리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한식 전문 셰프와 함께 삼계탕, 닭볶음탕 등 다양한 한국식 닭고기 요리를 만들어 홍콩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주)하림 글로벌팀장 박정훈 부장은 “KOTRA의 협조로 한국 닭고기의 우수성과 맛을 Maxim's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이번 수출을 계기로 삼계탕, 닭볶음탕 등 한식 세계화를 위한 메뉴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더 많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닭고기 선보이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영원기자

## ‘전주 우아한시티’ 특별공급 신청 23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전주 우아한시티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부담완화 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삼호로서, 주택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81번지이며, 특별공급 주택 세대수는 총 5세대(84A형 3세대, 84B형 1세대, 84C형 1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200만원)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2019년 4월 23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 김진호 주무관(063-210-6434)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